

다문화가정 양육프로그램의 효과

윤상후*, 김영아**

*대구대학교 수리빅데이터학부(통계·빅데이터전공)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yakim@jejunu.ac.kr

Efficacy of Parenting Programs to Reduce Parenting Burd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Sang-hoo Yoon*, Young A Kim**

*Div. of Mathematics and Big data science, Daegu University

**Dep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수행된 양육프로그램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데 있다.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선정하였으며, 실험연구 16편을 최종 분석하였다. 실험연구들의 주요 종속변수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였다. 이 중 6편씩 출판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대해 메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 간 이질성이 존재하고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의 수가 작아 사전 분포가 고려된 베이지안 메타분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메타분석 및 베이지안 메타분석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통합 효과크기는 1이상의 큰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하므로 다문화가정의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근거기반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1. 서론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다르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 문화 내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화적 상이함이 존재할 수 있다[1]. 한국사회가 자녀 양육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문화적 적응 시기에 의사소통 문제, 지지체계 부족, 경제적 곤란 등의 어려움에 양육의 부담이 가중된다[2-4]. 이주 초기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양육 관련 지식 습득을 어렵게 할 수 있고,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가족과 양육 태도의 차이,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3,5].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수행된 다문화 양육프로그램 연구들을 검토하여 주요 종속변수들을 중심으로 메타분석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와 보건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검색은 2020년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다문화’와 ‘양육’ 및 ‘결혼이주’와 ‘양육’으로 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한국학술정보(KISS)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한 결

과 1,182편이 검색되었고, Google Scholar와 참고문헌 검토를 통해 4편을 추가 확인하여 총 1,186편에 대해 연구목록을 1차 작성하였다. 중복된 문헌 552편을 제거한 후, 634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599편을 배제하고(관련없음 188편, 보고서 13편, 학술대회 자료 19편, 부적절한 대상자 6편, 조사연구 164편, 질적연구 135편, 문헌연구 73편, 혼합연구 1편), 35편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의 전문을 확인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19편을 배제하고(단일군진후설계 15편, 부적절한 결과 3편, 부적절한 통계치 1편), 16편을 최종 선택하였다.

3. 결과

최종 선택한 실험연구 16편 모두 2008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연구결과와의 통합을 위해 각 실험연구에서 어머니만을 코딩하였으며 총 396명(실험군 194, 대조군 202)이었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주요변수 중 각각 6편씩 연구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대해 메타분석하였다.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논문 간 이질성은 Q 통계량이 13.79 ($p=.017$)이고 I^2 이 64%로 통계적 이질성이 존재했다. 랜덤효과모형으로 산출된 평균효과크기는 -1.102 이고 $Z=-3.481$ ($p<.050$)로 실험군과 통제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참고문헌

보였다. 연구의 수가 10편이 되지 못해 출판 비뚤림을 위한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하지만 Egger의 검정결과 출판편향을 보였다($t=-4.287$, $p=.013$). 양육효능감을 다룬 연구들도 통계적으로 동질하지 않았다($Q=12.63$, $p=.027$; $I^2=60.0$). 통합효과크기는 1.2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674$, $p<.050$). 연구 수가 6편으로 10편에 미치지 못해 검정력이 낮지만, 연구의 대칭성을 위한 Egger 검정에서는 출판편향을 보이지 않았다($t=0.345$, $p=.748$).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된 평균효과크기는 양육스트레스가 -1.111, 양육효능감이 1.272이었다.

4. 논의

국제 교류의 증대 및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체류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 초기의 많은 다문화 가정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 언어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하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2-4,6].

본 연구를 통해 이주 초기의 문화적응 및 언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양육프로그램이 선행연구[7,8]처럼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양육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큰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의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중재프로그램들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다 많은 실험연구들이 축적되었을 때,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만족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속변수들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다문화가정의 양육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양육효능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모두 큰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및 다문화사회로 발전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험중재가 이루어진다면,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Jin, H. K., Sohn, J. H., "A study on the influence caused by the empathy ability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parental rearing attitude: Focusing on the literary works of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Multiculture & Peace*, 13(1), pp. 164-184, 2019.
- [2] Cho, S. J., Oh, H. K. and Min, H. J.,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s in Korea", *The Woman's Studies*, 94(3), pp. 109-140, 2017.
- [3] Han, S. Y., "A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Qualitative metho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1), pp. 5066-5075, 2012.
- [4] Kim, S. H.,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2), pp. 170-185, 2012.
- [5] Chung, H. I., "Child rearing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husbands", *Asian Nursing Research*, 4(2), pp. 75-88, 2010.
- [6] Chae, K. H., "A study on the medic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mothers and their parenting attitud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0), pp. 689-706, 2019.
- [7] Lee, E. J., Jun, M. K., "A meta-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4), pp. 9-44, 2014.
- [9] Lee, M. O., Kim, S. H., "Meta-analysis about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1(4), pp. 342-354, 2015.